

고대 문화의 큰 길목, 天安

길에서 길이 이어지는 곳, 천안

천하대안(天下大安), 혹은 천하안태(天下安太)……. 말뜻을 살펴보면 세상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매우 상서로운 말이다. 그러한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곳, 바로 천안(天安)이다.

천안(天安)은 행정구역상 충남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구 수가 총 14만 가구로, 인구 50만에 이르는 큰 도시로서 충남 내에서 가장 큰 시세를 자랑하고 있는 주거환경 조건이 뛰어난 고장 중의 하나로 이름이 높다. 과거에는 천안 삼거리를 통하여, 지금은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 경부선을 따라 서울과 지방으로 물자와 사람이 이동되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 바로 천안이다. 최근 각종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경부고속철도 역사(驛舍)와 아산항 등 국가시설이 들어서면서 교통·물류 첨단 산업이 함께하는 중부내륙권의 거점도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바탕에는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들 수 있는데, 북쪽으로 평택(平澤)과 안성(安城)을 통하여 서울로 진출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공주(公州)와 연기(燕岐)를 거쳐 영남과 호남으로 나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쪽으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천안

로 아산(牙山) 또는 서산(瑞山)을 거쳐 쉽게 서해로 갈 수 있고 동쪽으로 진천(鎭川)과 청주(淸州)를 통해 충청 내륙은 물론 영남으로 나갈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유리함은 예로부터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고 서해와 도서로 진출하는 교통의 관문 역할을 다하였고 차령산맥과 연계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에서 ‘천안과 직산은 남북으로 통하는 큰 길이다.’라고 하여 당시에 천안이 교통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의 각종 지리지에서 천안이 서울과 지척간이고 바다와 가까워서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했고 서울의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도로가 정비되고 큰 고을이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다는 기록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고대 문화의 큰길

천안의 지형은 낮은 구릉성 산지와 충적 평야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바다가 인접하고 있으며 비록 큰 강은 없지만 소하천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고 수산물이 풍부하였다. 또한, 편리한 교통으로 농수산물의 유통이 활발하고 모든 물산이 풍부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입지적, 지형적인 배경으로 인해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가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파시키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이 최근 조사된 유적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고대에 전파된 문화는 주로 북방에서 유입된 것이었다. 한반도에 전파된 문화는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곳 천안 지역에 많은 유적을 남겨 놓았다. 이 유적들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지역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향하는 문화 이동에 있어서 단순히 경유지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조금씩 유형이 다른 문화들이,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문화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형적 이유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번성했던 것이다. 최근의 조사 성과는 천안지역이 청동기시대에 중·남부 지역 각지로의 청동기 문화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마한의 한 중심지로, 혹은 백제 세력 확장의 전진 기지로서 큰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천안은 지금까지 이처럼 탁월한 입지와 지형에 비해 역사 속에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백제 영역의 중심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와 부여와 달리 왕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화려한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유적이 즐비하지만 천안에는 눈에 띄는 대규모 사찰이나 이름난 명승고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면서 천안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국민들에게 호국 정신을 고양하는 고장으로 부각된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천안지역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을까?

아직까지 천안에 대한 역사적 시각은 마한시대의 목지국(目支國), 백제시대 직산(稷山)의 위례성(慰禮城), 고려시대 태조(太祖) 왕건(王建)과 관련된 역사, 근대에 이르러 3.1운동과 연관된 아우내 장터의 만세운동 등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천안의 문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의 틀은 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러나 최근 천안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대규모의 산업개발이 추진되면서 수많은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그동안 묻혀있었던 과거 조상들의 생활상과 자취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의 타제석기(打製石器),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의 주거지(住居址), 마한시대(馬韓時代)의 고분(古墳) 등 각 시대를 대표할만한 유적과 유물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천안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사적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천안의 고대 문화

천안의 고대 문화는 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간다.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하여 동굴이나 강가에서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던 시기를 가리킨다.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그 간 천안 지역의 지표조사 등을 통하여 몇 군데에서 유물을 채집하는데 그치다가 정식으로 두정동(斗井洞) 유적의 발굴에서 구석기 중기에서 후기에 해당되는 석기를 찾았다. 석기는 모두 둥글고 매끈한 돌을 거칠게 깨어 나무를 자르거나, 동물을 도살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었다. 두정동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는 다용도로 쓰였던 주먹도끼와 유기물을 자르거나 다듬는 긁개, 밀개, 자르개가 있다.

구석기 다음 시대인 신석기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은 역시 발굴 조사된 예는 없지만, 봉룡동(鳳龍洞)에서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된 바가 있고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신석기 유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은 백석동(白石洞), 불당동(佛堂洞), 업성동(業成洞), 쌍룡동(雙龍洞), 청당동(淸堂洞), 남관리(南館里), 대흥리(大興里), 석곡리(石谷里), 용원리(龍院里) 등 많은 수의 유적이 있다. 이 유적들은 청동기시대 전 시기에 걸친 천안 지역의 다양한 문화상을 보여주고 있고 마을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前期)에 해당되는 백석동, 불당동, 업성동, 쌍룡동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들은 긴네모꼴과 네모꼴을 하고 있고 주거지에 내부에서 입술에 돌아가며 구멍을 뚫어 장식한 토기와 입술을 두 겹으로 장식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중기(中期)에서 후기(後期)에 해당되는 주거지들은 남관리, 대흥리, 석곡리에서 조사되었는데 둥근꼴의 주거지에 바닥에 구멍을 뚫은 토기와 각종 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주거지들은 높지 않은 구릉이나 산 사면에 대규모 군집을 이루며 위치하는데, 천안의 청동기인들은 같은 마을 내에서 공동경작과 공동분배를 통해 부족사회를 이루며 살았다.

이러한 부족사회들이 더 큰 집단으로 결집됨에 따라 크고 작은 정치집단으로 성

장하였다. 최근 마한시대(馬韓時代)와 백제시대(百濟時代)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유적이 상당수가 조사되어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먼저 마한시대에 해당하는 고분유적으로는 청당동(靑堂洞)과 운전리(云田里)에서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고분이 발굴되었다.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 한국에서 최초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토된 화려한 유물은 무덤의 주인공이 천안 지역을 다스렸던 지배층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화성리(花城里), 두정동(斗井洞), 용원리(龍院里)에서는 마한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토광묘(土壙墓)와 석곽묘(石槨墓) 무리가 발굴되었다. 위 유적들에서 조사된 고분들은 규모가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화려한 고품격(古品格)의 유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학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고품격의 유물 중 왕이나 최고의 권력층이 지녔던 무기와 장신구들은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한 이렇게 대단한 무덤을 축조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가 용원리(龍院里), 두정동(斗井洞), 장산리(長山里)에서 발굴되었는데, 마을 단위의 주거지 군락과 경작지가 조사되어 당시의 마을과 농업 형태를 추정케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분과 주거지를 통해서 본 천안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대가족이 살았던 큰 마을 백석동(白石洞)·불당동(佛堂洞) 유적



백석동 유적전경



불당동 유적전경

천안시 백석동(白石洞)과 불당동(佛堂洞)에 위치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대규모 주거지(住居址) 유적이다. 조사된 주거지의 수는 각각 100채와 20채 이상으로 야산의 구릉에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다. 주거지는 높이 1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에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입지하는데, 그 형태는 평면상 매우 긴네모꼴(細長方形), 긴네모꼴(長方形), 네모꼴(方形)로 구분되는데, 매우 긴 네모꼴과 긴 네모꼴이 대부분이다. 매우 긴네모꼴 주거지는 한 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긴 모습으로 위에서 보면 마치 아파트와 같은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천안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주거지에서는 필요에 의해 증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진 흔적이 보여 가족이 늘어나면 집을 늘렸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중앙에 불땀자리가 있어 난방과 취사가 이루어

유적 관람모습

The first photograph on the left shows a collection of various archaeological artifacts laid out on a white surface. These include several small, dark, elongated objects, possibly flint or obsidian tools, and a larger, light-colored, oval-shaped object that appears to be a shell or a piece of pottery. The middle photograph shows a small, reddish-brown, cup-like object with a slightly flared rim and a small, rounded base. The third photograph on the right shows a larger, tan-colored, cup-like object with a wide, flared rim and a slightly tapered body, featuring some visible cracks or decorative patterns on its surface.

구멍무늬토기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신라시대(新羅時代) 고분(古墳)의 분구(分口) 유적(遺蹟)이 거의 전무한 점이다. 즉, 신라시대 고분유적(古墳遺蹟)에서 분구(分口) 유적(遺蹟)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고대사(古代史) 연구(研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斷竝)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천리 유적은 천안지역에서 처음 조사된 대규모의 고분유적으로 일찍이 조사된 적이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가 군집을 이루고 있다. 모든 토광



청당동 주구토광묘



운전리 토광묘

묘(土墳墓)는 상단부에서 ‘ㄷ’자형으로 감싼 도랑이 설치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도랑을 ‘주구(周溝)’라고 한다. 주구 아래쪽에 땅을 직사각형으로 파서 유물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고 봉분을 덮은 것으로 주구는 봉분이 완성된 후에 배수 시설의 역할을 하였다.

매장된 유물은 죽은 자가 사용했거나 저승세계에서 사용할 토기와 장신구로 주인공의 성별이나 계급에 따라 유물의 격이 틀린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 묻힌 토광묘에서는 주로 무기가 부장되고 여성이 묻힌 토광묘에서는 주로 장신구가 많다. 이러한 모든 유물들은 화려한 장식을 가진 고품격의 유물로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유물이었다. 주구토광묘는 청당동을 비롯한 미호천(美湖川) 유역에서는 천안 신평리(新豊里)를 비롯하여 청주 송절동(松節洞), 청원 송대리(松垈里)에서 조사되었고 금강중하류역에서는 공주 하봉리(下鳳里), 오석리(烏石里), 분강(汾江)·저석리(楮石里), 군산 조촌동(助村洞)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청당동과 운전리에서 나타난 고분 형태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만 출토유물의 격이 떨어지고 화려하지 못하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독특한 분묘형태와 고품격의 부장품은 마한의 한 소국(小國)이 존재했고 천안은 이 소국의 수도로 고대 문화를 꽃피웠다.

천안의 역사를 대변하는 두정동(斗井洞) 유적



분구묘



원삼국시대 주거지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및 고분유적으로 구석기시대로부터 백제 시대에까지 천안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대표적인 유적이다.

먼저, 구석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유물포함층에서 망치돌을 비롯한 밀개,

끓개, 격지 석기 등의 생활도구가 많이 출토되었다. 천안은 이미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다음으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긴네모꼴(長方形) 주거지가 발굴되었고 마한시대와 백제시대 주거지와 고분군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들은 백석동 유적처럼 마을을 이루며 존재하고 모두 긴네모꼴의 주거지로 천안 장산리, 용원리 유적과 유사하여 동일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웃하여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분은 주거지와 떨어져 토광묘(土壙墓), 옹관묘(甕棺墓), 분구묘(墳丘墓), 횡혈식석실묘(橫穴式石室墓)가 만들어졌다. 고분 중에 분구묘는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무덤으로 하나의 봉분 속에 토광묘, 옹관묘, 석곽묘(石槨墓)가 모두 들어간 독특한 형태로 큰 봉분과 화려한 유물이 부장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분구묘가 고대 국가의 형성기에 각국의 왕도에서 나타나고 있어 두정동 분구묘는 최고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또한 출토유물 중 가야(伽倻) 계통의 화로형(火爐形)토기는 가야 왕조와 관계가 있으며 중국의 회유토기(灰釉土器)는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준다. 이처럼 두정동 유적에서는 전 시기에 걸친 시대상뿐만 아니라 고품격의 고분과 주거지가 갖추어진 당시의 다양한 문화상이 집결된 유적으로서 주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화로형
토기

천안의 귀족 무덤 화성리(花城里) 유적



목관묘

천안시 화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기 백제시대 분묘유적으로 비교적 낮은 구릉의 남북사면에서 널무덤(木棺墓) 9기와 덧널무덤(木槨墓) 2기가 조사되었다. 목관은 대부분 긴 판자를 상자 형태로 못 없이 짜 맞추었다. 목관을 짜는 방식은 평양 지역에 있던 낙랑의 방식과 동일한 부분이 많고 천안이남 지역에 존재하는 널무덤(木棺墓)들은 화성리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출토유물은 다양한 기종의 항아리(壺)와 바리(鉢)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環頭大刀), 쇠창(鐵鎗), 쇠낫(鐵鎌)등의 철기류, 방제경(方製鏡), 옥(玉) 등의 의식 및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유물의 부장 형태는 항아리(壺)와 깊은 바리(深鉢形土器)가 쌍을 이루어 매장되고 있다. 특히, 출토유물 중 흑색마연 직구단경호(黑色磨研直口短頸壺)는 초기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토기로 백제 왕조와 관련성을 가지는 유물로 당시 화성리 널무덤의 주인공이 적어도 높은 권력을 가진 귀족층임이 분명하다.

또한, 동진제(東晉製) 청자반구호(靑瓷半口壺)는 중국 남경(南京)의 상산(上山) 1호분에서 출토된 청자와 동일한 형태로 다소간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고 은상감환두대도(銀象嵌環頭大刀)는 최고의 귀족층이나 지방관에게 수여했던 유물이다.

고대 문화의 정화(精華) 용원리(龍院里) 유적



고분군 전경



유적관람 모습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에 위치하고 있는 청동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생활유적으로 발굴 당시 학계를 놀라게 했다.

먼저,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모두 5기로 청동기시대 전기(前期)의 세장방형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거지의 형태는 근처 백석동, 업성동, 불당동, 쌍용동에서 보고된 바 있다.

원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모두 100여기가 군집을 이루어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지의 형태는 대부분 네모꼴에 네 가장자리에 각각 1개씩 기둥구멍이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유물은 주거지 내에서 매우 많은 생활 토기가 출토되었다. 토기의 종류는 주로 항아리(壺)와 납작한 바닥을 가진 바리(鉢)가 대부분으로 표면에 격자문을 전면에 시문한 것이 많다.

분묘는 주로 토광묘와 석곽묘로 특수하게 낮은 구릉의 북향 사면에 줄과 열을 맞추어 배열되어 있다. 토광묘에서 시신의 머리는 대부분 서쪽으로 향하며 목관의 위아래에 항아리(壺)와 깊은 바리(深鉢形土器)가 쌍을 이루어 머리 부분에 부장되어 있다. 이러한 매장 방식의 의미는 죽은 자의 사후(死後) 삶을 대비한 의식으로 여겨진다. 토기 이외에 기타 철기 및 장신구는 발치 부분에 둔다.

석곽묘는 토광묘 보다는 수가 적지만 출토유물은 토광묘보다 더 화려하고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토기로 바리(鉢)를 비롯하여 각종 항아리(壺)가 주종을 이룬다. 출토된 토기 중 흑색마연토기와 흑유자기(黑釉磁器)인 계수호(鷄首壺)는 유적의 연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흑색마연토기는 백제 토기 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토기로 서울 가락동과 석촌동에서 출토된 바 있어 서울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계수호는 중국 노화산에서 출토된 동진제 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 분명하다.

철기는 무기류와 마구류가 고르게 출토되었고 장신구는 구슬과 옥 및 금동제이식과 관모 장식품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중에 관심을 끄는 환두대도(環頭大刀)는

자루의 고리 안에 용과 봉황이 투각되었고 고리와 손잡이에 세밀한 은상감(銀象嵌)을 한 화려한 유물이다. 이 환두대도는 각 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왕릉인 황남대총, 옥전고분, 무녕왕릉에서 유사한 것이 출토되고 있다.



흑색마연토기



계수호



환두대도



등자



목걸이, 구슬



귀걸이

천안의 방어기지 백석동(白石洞) 토성(土城)

천안 중앙부에서 서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봉서산에 위치한 백제시대 산성이다. 백석동 토성은 산의 정상부를 떠처럼 두른 산성으로 총 둘레가 260m에 이른다. 토성은 전체적으로 굽은 옥(曲玉)의 형태를 하고 순수하게 흙을 쌓아 만든 성이다. 현재 동벽과 남벽의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북벽과 서벽은 자연 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성벽은 먼저 지형의 경사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만들고 흙을 차례차례 다져 쌓아 성벽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성벽의 유실을 막기 위해 성벽을 따라 나무기둥을 박았다. 성 내부에서는 용수 저장 시설과 주거지가 남아있고 성벽의 바깥에는 성 외곽을 두른 도랑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성벽의 견고



토성 전경



성벽의 구조

합과 구조상 장점만을 채용하여 만듬으로서 공격과 방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측된 성벽

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무문토기와 백제시대에 해당되는 항아리(壺)와 잔(杯)등 일반 생활 토기가 출토되었다.

백석동 토성은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주요 거점 산성은 아닌 듯 하며, 주위에 다른 산성들과 동시에 존재하면서 특수한 집단의 방어기능을 담당했던 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굴조

사에 의하여 드러난 성벽의 기초 형태는 비교적 동일 시기의 부여 부소산성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성내의 용수 저장시설이나 출토된 벼루의 특징은 공주 공산성을 비롯한 웅진기의 다른 성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다. 따라서 웅진시대의 다른 성들이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어 백석동 토성 또한 이 시기에 해당되는 특수한 목적의 토성으로 천안을 지키는 최전선의 보루가 되었다.

최근 전격적으로 확보된 중요한 문화 유적 자료는 지금까지 잊혀졌던 천안의 역사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은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생산물을 바탕으로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청동기시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마을이 늘어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증가는 곧 인구압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뒤이어 주민들은 사망으로 확산되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다. 청동기시대에 이미 형성된 대규모 마을들은 마한시대에 와서 유력한 정치 집단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발전한 모습이 주거지와 고분을 조사하면서 밝혀지고 있다.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천안의 역사적 평가는 전환되어

야 하며 역사 속에서 변방이 아닌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지금까지 천안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는 개발의 논리에 밀려 문화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관심과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천안이 21세기를 맞이하여 전통 문화와 첨단과학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하려는 원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함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